

칼을 찬 참 선비(眞儒) 권율

조선은 500여 년 동안 선비를 길렀다. 그 선비들의 기개는 국가경영의 근간이 되었다. 매천 황현은 1910년 일제 강점에 항거하여 절명시(絶命詩) 4수와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다. 나라가 망하는데 죽었다는 선비 하나 없으면 그게 어디 나라이겠는가 하며 목숨을 끊었다.

새도 짐승도 슬피 울고 바다와 산악도 찡그리니
鳥獸哀鳴海岳嘯(조수애명해악빈)
무궁화 세상이 이미 망해버렸구나
槿花世界已沈淪(근화세계이침륜)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날 생각하니
秋燈掩卷懷千古(추등엄권화천고)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 어렵기도 하구나
難作人間識字人(난작인간식자인)

조선의 마지막 선비라고 일컫는 매천 황현의 절규다. 황현은 조국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식자인(識字人)으로서 건디기 어려워 자결을 선택한다. 조선이 키운 절개 있는 선비의 전형이다. 주자학의 영향이 크다. 주자학은 글만 아는 선비를 키운 학의가 많다. 그러나 유학에서 꼭 이렇게 글자만을 아는 선비만 선비가 아니다. 유학은 본래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 즉 6예를 가르쳤다.

이는 각각 예의범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또는 마차탈기, 서예, 수학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 조선을 건국하고 설계한 정도전의 말을 들어보자. 정도전은 참 선비(眞儒)는 첫째,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이 닳여지고 도덕을 겸비한 사람. 둘째, 식견이 시무(時務)에 능통하고 재주가 경국제세(經國濟世)에 알맞아서 사공(事功)을 세울만한 사람. 셋째, 문사(文辭)에 익숙하고 필찰(筆札)에 솜씨가 있어서 문한(文翰)의 임무를 맡을 만한 사람. 넷째, 율산(律算)에 정통하고 이치(吏治)에 달통하여 백성을 다루는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 다섯째, 지모나 도략(道略)이 깊고 용기가 삼군(三軍)에 으뜸이어서 장수가 될 만한 사람. 여섯째, 활쏘기와 말타기에 익숙하고 돌맹이를 던지는 일에 솜씨가 있어서 군무를 담당할 만한 사람. 일곱째, 천문(天文) 지리(地理) 복서(卜筮) 의약(醫藥) 중에서 한 가지 특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 (삼봉집 三峯集)

정도전은 문(文)은 태평한 정치를 이룩하고, 무(武)는 난리를 평정하므로 문무는 양팔과 같다고 해서 근정전 동쪽과 서쪽에 웅문루(隆文樓)와 웅무루(隆武樓)를 세워 국가경영의 기본틀로 설정했다. 국가를 경영하는데 문과 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결코 글만 아는 사람만이 선비가 아니다. 경학에 밝고 도덕을 겸비하는 것은 필수다. 또한 행정사무에서부터 외교문서까지 작성할 수 있으며 현안문제인 시무에 밝고 능력을 발휘해 사



공(事功)을 세울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무략에 능통하고 말을 잘 타서 장수가 될 만한 사람 또한 선비다. 심지어 돌맹이를 기가 막히게 던져 군대의 임무를 수행할 만한 사람, 천문, 지리, 의약 등의 특기를 가진 사람도 역시 선비의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본다면 권율(1537-1599)은 문무결전의 표상이다. 과거는 문과에 급제했을 뿐 아니라 풍전등화의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이치대첩, 독산성전투,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어 나라를 구한 조선의 도원수이자 장군으로 더 유명하니 권율도원수야말로 유학에서 표상하는 선비 중의 선비 참 선비임에 틀림없다.

과거에 급제하여 1591년 의주목사가 되었고, 1592년 4월 20일경 광주목사에 부임했으며 같은 해 7월 13일 나주목사에 임명된다. 목사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목민관이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광주와 나주 지방 등 전라도 지역에 비장한 격문을 보내 수많은 백성들이 의문을 일으켜 의병에 참전하도록 했던 대단한 문장가이기도 했다. 권율장군의 “고을에 의병을 소집하는 글 檄召列郡義兵文”의 일부이다.

“백성들이 적을 만나 피해를 입었으니 어찌 어진 사람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 슬프다. 각 고을의 남아들은 모두 나라에 충성을 다하라. 나는 언제나 국사를 생각하면 피를 토하고 눈물을 지으며 한 몸을 돌보지 않고 시종 두려움이 없으나 이리때와 같은 적의 세력이 더욱 방자하고 막되어 행행하는 이때 오히려 줄로는 적을 간단히 무찌르기 어렵다. 의병을 모집하여 피로써 맹세하고 흉적을 소탕하는데 있는 힘을 다하여 함께 토벌할 것이다.”

칼을 찬 권율장군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쟁터로 달려가기 바로 직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총궐기할 것을 붓으로 호소하고 있다. 위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고 애국충정의 마음과 피를 들끓게 하며 의분을 치솟게 한다.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문장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의병을 모을 수 있었겠으며 또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울

수 있었겠는가. 경국대전에는 목민관인 수령이 해야 할 일곱 가지 일(七事)이 명시되어 있다. 먼저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농상(農桑)을 번성하게 하고, 둘째, 호구를 증식시키며, 셋째, 학교를 진흥시킨다. 넷째, 군정을 정비하고, 다섯째, 부역을 균평하게 하며 소송을 감소시키는 일 등이다. 이 항목들은 목민관이 부임지에서 실천해야하는 조항들이다. 권율은 전시 비상시국인 1592년 6월 광주목사의 자격으로 비장하게 약백 10조를 발표한다.

첫째, 농업과 잡업에 게으르지 말고 세금과 공납에 힘쓴다. 無怠農桑 克勤貢稅

둘째, 과업을 권하고 훈계 가르치기를 평상시보다 더하다. 勸課敦訓 尤倍平時

셋째, 활쏘기와 말타기를 철저히 익히고 자체들도 자발적으로 따른다. 復習弓馬 續發子弟

넷째, 민심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뜬소문을 믿지 말라. 勿信訛言 以動民心

다섯째, 이웃고을사람(피난민)이 와 의지하면 힘써 위로한다. 隣民來附 勞之徠之

여섯째, 대나무를 재배하고 철을 캐서 무기제작에 협조한다. 養竹採鐵 以助軍器

일곱째, 여자는 자신의 일에 힘쓰고 지아비를 대신하여 가정을 주관한다. 女勤女工 代夫幹家

여덟째, 음식과 옷을 아껴 군량에 보탬이 되게 한다. 節食約衣 以獻軍糧

아홉째, 관리와 백성은 서로 믿고 한 가족처럼 여긴다. 吏民相孚 視同一家

열번째, 관청의 업무를 어지럽힐 수 있으므로 서로 다투어 송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無相爭訟 以擾官政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에게 평상시처럼 생업에 열중하지만 시국이 시국이라 활쏘기와 말타기를 철저히 익혀 비상시에 대비하기를 신신당부한다. 더불어 헛된 유언비어에 민심이 동요되지 않기를 단속하고 이웃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며 민관이 일체가 되어 위기를 극복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전쟁수행에 필요한 무기제작과 군량을 비축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발표했다.

결국 비상사국 대처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약법 10조와 격문을 통해 전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이런 호소문을 통해 의병을 모아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권율도원수는 목민관으로서 장수로서 문과무를 겸비한 선비 중의 선비 참 선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연구된 논문은 희소한 편이며 전쟁사, 사상사, 선비 등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키아벨리가 세계적인 대사장이 반열에 오른 것은 마키아벨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후손을 잘 만났기 때문이라고 했던 어느 외국 학자의 말이 떠오르는 것은 왜 일까. <글: 권행환>



평창 동계 올림픽과 권씨들



성황리에 끝난 평창 동계 올림픽에 권문의 선수는 없으나, 가장 중요한 두가지 사실에 권씨가 관련이 있다. 그것은 여자 컬링과 남북화해 공연이다. 컬링은 김은정 리더가 이른바 영미 돌풍을 일으키며 ‘안경선배’라 불리우니 이는 비록 만화 주인공의 가상인물이기는 하지만 권준호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그리고 북한 예술단을 이끌고 온 북한 문화성 국장 권혁봉이 있다. 100만 족친이라 칭하는 이유는 70만 남쪽 족친과 30만 북쪽 족친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직접 관련은 없으나 이토록 권문의 그림자는 여기서도 빛나는 것이다. 차후 권씨대중회사업국은 북한의 권씨에 대해 알아보는 노력을 기울이고자한다.

‘안경선배’, 권준호의 리더십, 그리고 여자컬링 국가대표팀 김은정의 카리스마



슬램덩크 권준호(가상인물) ‘팀장’의 김은정

이번 평창 세계동계올림픽의 빅히트는 ‘영미’의 여자 컬링이다. 남북 평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고 세련되고 무난한 진행과 함께 이제 ‘코리아’는 아시안게임,올림픽,월드컵,동계올림픽등 세계적인 시합을 다 치른 세계적인 국가로 우뚝 섰다. 그리고 민족통일의 시금석이 될 2021년 제9회 동계아시안 게임이 남북 공동 개최로 열리는 그날만 남아 있다.

권문의 분향 안동이 안동짬뽕과 간고등어에 빠져 있을 때, 그 좌우의 인근 동일 문화권인 예천은 양궁을 당기고, 의성은 컬링으로 대박을 터트렸다. 지금도 그와 유사한 건이 스포츠계에 있으니 안동은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권준호는 <슬램덩크>라는 90년대 일본 인기 만화의 조연(가상인물)이고, 김은정은 실제 의성 마늘 소녀로서 이번 동계올림픽의 스타가 된 컬링 팀의 리더이다. 안경은 지성과 냉정의 상징이다. 그리고 평범과 관용의 아이콘이다. 이번 김은정은 권준호와는 다른 캐릭터이지만, 그 분위기는 매우 유사하다.

그녀의 어머니 이름이 김영미, 지난 10년 간 부른 어머니의 이름은 몇 만번일 까? 이 또한 우연한 일은 아니다. 어머니를 애타게 부르는 데,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그 무엇이겠는가?

권준호는 농구를 소재한 만화(일본산)인데, 그는 그저 평범하고 운운하며 농구를 좋아하는 하지만 기량이 뛰어 나지는 않다. 그러면서 그는 3년 내내 우승권에서 먼 고교 농구부의 벤치를 치켰다. 그리고 잘난 에이스들의 시간강진 행동에도 어쩔은 미소로 응대 할 뿐이다. 후보 선수로 부상자가 나오면 자리를 메워주는 그런 입장이었다. 키도 178센티로 농구 선수로서는 작은 키이고 파이팅도 부족한 그런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항상 팀의 뒷전에서 안내와 미소로 묵묵히 묵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더구나 결정적일 때, 3점슛을 날려 팀을 살리는 역할도 한다. 이는 상대방 선수가 앞잡아 보고 커버를 안하는 것도 있고, 에이스를 커버하는 동안 그 틈새에 그의 숨은 폭발력을 적절히 사용한 결과이다. 또한 운운한 권준호는 결정적인 일, ‘즉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 일 때에는 불같이 분노하며 온 몸으로 반항하며 막아낸다. 바로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다. 조직(학교 농구부)해체와 능력에 대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없이 모든 걸 걸고 대든다. 그것이 누구이든, 어디 이든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태도이고, 올바른 자세이다.

우리 시대는 이제 이런 조용하면서 희생적인 리더십을 요구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즉, 남을 배려하는 여지사지(易地思之)의 리더십 만이 신유목민 시대에 적절한 것이다. 구시대적 계급사회의 연공서열과 기득권이라는 요소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권문의 분향 안동옹부(安東翁府)의 주변 도시 예천, 의성, 봉화에 이런 걸출한 스포츠 아이팀이 대 히트를 하는 것은, 바이칼을 거쳐 간난을 뚫고서 내려온 유목민의 미토콘드리아가 모계(母系)를 통하여 공간 감각이 우월한 유전자를 남겨 주었기 때문이다. 여자 농구의 박신자, 여자 골프의 박세리, 양궁의 김진호, 컬링의 김은정등 모두 그런 예이다. 거기에 농경민족으로서의 지성적 학업열의 결합이 낳은 소산이다.

이들 권준호와 김은정의 드러난 리더십은 전혀 다르다. 權은 순조적이고 보완적이나, 金은 선도하고 주도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사람보다 조직에 대한 충직성과 원칙에 대한 복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원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신뢰와 배려이다.

오늘, 이 축복의 날에 민족이 하나되고, 평화의 기운(춣불)이 요원의 불길(햇불)이 되어 떠오르는 이 대전환의 시대에, 개혁의 시대에, 안동문화권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에 축하와 축복을 보내고, 안경선배들의 후천과 그 정신에 격려와 찬사를 드리는 것이다.

<글: 권오철>

권혁봉(權赫奉) 북한 문화성 국장 북한예술단 인솔, 동계올림픽 특별 공연 참석



들의 호응은 열정적이었다. ‘반갑습니다’ 노래를 한복을 입고 불렀다. -사진 노컷뉴스



쇄 석 골 재

- 1등급골재 (13mm 19mm 25mm SMA5 SMA10 SMA13)
- 쇄석골재 (8mm 10mm 13mm 19mm 25mm)
- 혼합골재 (보조기층 40mm)
- 부순모래

아 스 콘

- 일반 아스팔트콘크리트
- 칼라(투수) 아스콘
- 개질아스콘(SMA PMA PBS)



레 미 콘

- 서중·한중 콘크리트
- 황토·유황 콘크리트
- 투수 콘크리트



전문건설업

- 아스콘 포장공사
- 과속방지턱설치 공사
- 소파보수·덧씌우기 공사



회장 권 광 택

환 희 개 발 주식회사 ☎ 043) 260 - 1775
옥산아스콘 주식회사 ☎ 043) 260 - 2205
옥산레미콘 주식회사 ☎ 043) 260 - 2222

대표이사 / 회 장 권 광 택

품 질 과 신 용 으 로 보 답 하 겠 습 니 다 .